●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출범기념 문예공모전 입선작

책을 닫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전태일의 목소리가 있다.

"대학생 친구가 하나 있었으면 원이 없겠다."

가난의 아픔 때문에, 배우지 못한 한 때문에 쓸쓸히 웃으며 되뇌였을 말. 무엇보다도 그 말이 내 가슴을 무겁게 짓눌러온다. 나, 무엇 때문에 공부를 했고 또 대학생이 되고자 했던 것일까?

전태일은 또 다시 내 귓전에 속삭여온다.

'나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니? 그리고 소외된 이들, 가난한 이웃들의 벗이 되어 줄 수 있겠니?'

이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전태일 평전〉은 내 삶에 있어 또 하나의 물음이 된다.

열 여덟의 나. 내가 살아야 할 삶이란……?

● 공모부문/ 독서감상문 : 어린이 부문

백범 김구 선생님께

조수환(천안시 구성초등학교 3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조수환 이라는 학생입니다.

이 곳은 충청남도 천안, 선생님이 계신 곳이지요.

독립기념관이 가까이 있어서 저는 선생님을 뵈러 자주 간답니다.

엊그제 늦은 가을이라고 제가 시를 썼는데 며칠 사이에 겨울이 되어버린 것처럼 많이 추워졌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떠세요? 영혼이 많이 춥지는 않으신가요?

74세에 돌아가시기까지 70평생을 이 나라의 독립과 이 겨레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 가신 김 구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오로지 조국의 독립과 겨레의 자유, 그 것만을 위해 사셨지요.

이 나라의 독립은 왜 선생님의 염원이요, 생명이요, 보람이셨습니까?

저는 남자라서 그런지 나라와 관련된 것은 모두 관심이 많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소원이 이해가 조금 되면서도 또 많이 궁금합니다.

저는 책 중에서도 위인전을 참 좋아합니다.

3학년이 되어서 아주 많이 읽었지요.

그 중에서도 선생님을 제일 존경해요. 왜냐하면, 훌륭한 말씀 때문입니다.

‘나의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 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라고 하셨잖아요.

어쩜 그토록 나라를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한번은 우리 나라, 우리 겨레가 일본의 발굽 아래 마구 짓밟히자, 선생님께서는 무섭게 일어서서 싸우셨습니다.

어디서 그런 대단한 힘이 나오셨는지 참으로 궁금해요.

선생님의 뜻대로, 그 대단한 힘으로 우리는 광복을 맞았고 조국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면서, 흉탄에 쓰러지고 마셨지요.

“아 아! 백범 김 구 선생님! “

온 겨레는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떻게 생을 그렇게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까?

조국 광복을 맞았는데 왜 금방 가실 수밖에 없었는지 참 허무했어요.

비록 선생님은 떠나시고 안 계시지만 선생님의 위대한 생애는 온 국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선생님의 위대한 업적도 우리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남을 겁니다.

선생님, 김 구 선생님, 너무 많이 존경합니다.

제 마음에 나라를 사랑하는 힘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생각을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에 필요한 인재로, 나라의 빛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우리 할아버지와 많이 비슷하세요. 두꺼운 안경 쓰신 것까지 비슷하세요.

저 며칠 있다가 독립기념관으로 선생님 뵈러 갈거에요.

선생님 책을 들고 갈게요.

검정 안경 여전히 쓰고 계시죠?

다리도 많이 아프실텐데 그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2002년 10월 22일 조수환 올림-